

문법 교육의 방향

구본관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들어가기

인간은 모두 언어를 가지고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살아간다.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꿈을 꾸다. 어떤 점에서는 언어는 곧 사고이고, 언어는 곧 인간이기도 하다. 촛스키가 언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고자 했던 것도 언어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발명한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이 곧 언어인 것이다. 언어를 운용하는 원리는 ‘문법(文法)’이다. 문법이 없이는 언어가 운용되지 않으며 언어를 통한 인간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해진다.

모국어 화자는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이 모국어의 문법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법을 따로 배우는 문법 교육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문법 교육 무용론으로 지칭되는 논의에서는 문법을 교육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며, 문법 교육을 한다고 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¹⁾ 문법 교육에 대한 이런 오해는 국가 교육과정이나 대학

1) 언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 흔히 문법 교육 무용론은 ‘의사소통론’.

수학 능력 시험에서 문법 영역을 축소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뒤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겠지만 이는 문법 교육에서 배우는 문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선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언어 운용의 원리가 곧 문법이므로 ‘국어 교육’과 같은 자국어 교육이 존재하는 이상 문법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문법 교육이 없는 국어 교육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모국어 화자라고 해서 모든 언어 운용의 원리, 즉 그 언어의 모든 문법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높임법과 같이 복잡한 문법을 잘 알기 어려우며, 지역의 차이나 화자의 특성에 따른 문법적인 차이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모국어 화자라 하더라도 문법 교육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물론 문법 교육의 필요성을 단순히 문법을 알아서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만 둘 수는 없다. 그리스 이래로 문법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학문으로 규정되어 왔다. 우리의 인지(認知)가 언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법 교육은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논의를 고려한다면 이제 문법 교육이 ‘왜 필요한가?’보다는 문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가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어떻게’의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는 문법 교육, 특히 모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습득론’, ‘자연적 순서론’, ‘어휘 뭉치론’ 등이 있고, 이와 반대로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문장 제조기론’, ‘정치한 조절 기능론’, ‘오류 문법 화석화 방지론’, ‘선행 조직자론’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관규 외 역(2004)를 참조할 수 있다. 국어교육학계에서는 문법 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김광해(1997)에서 정리된 것처럼, 문법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입장’, 문법 교육이 국어 기능의 신장에 필요한 정도만 필요하다는 ‘통합적 입장’, 문법 교육의 독자적 가치를 인정한 ‘독자적 입장’, 국어 기능 신장과 문화적인 필요성 등을 인정하는 ‘포괄적 입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최근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법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국어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학령기 이전과 초등·중등·고등교육 및 그 이후를 포함하는 평생 교육이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시기가 학령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 역시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문법 교육이 부분적으로 평생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을 포함하지만, 평생을 사용할 문법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내용도 주로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의 방향이 중심이 될 것이다.

학교 교육의 대상이 되는 문법 교육은 흔히 학교 문법으로 불린다. 학교 문법은 서양의 전통 문법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흔히 ‘실용성’과 ‘통일성’, ‘간결성’을 가진 문법으로 지칭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문법의 성격을 가지는 학문 문법과 대비되는 규범 문법의 성격을 지니는 학교 문법이 암묵적으로 존재해 왔다. 학교 문법이 정해진 것은 기술 문법이 가진 복잡성을 제한하여 교육적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문법 교육의 목표가 학교 문법으로 제한된 문법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언어 운용의 원리인 문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언어적 민감성을 기르는 것 즉, 언어 인식 능력의 신장에 있음을 고려하면 특정한 이론 중심의 학교 문법은 오히려 문법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²⁾

본고는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을 포함하는 문법 교육 논의의 총론의 성격을 가진다.

2) 학교 문법의 정의와 관련하여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 교육 문법(국어 교육 문법, 한국어 교육 문법) 등의 차이를 기술한 논의에는 임홍빈(2000), 우형식(2010), 임철성(2010), 유현경(2013)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종합적 정리는 구분관 외(2015:25), 고영근·구본관(2018:11)을 참조할 수 있다.

그리하여 먼저 문법과 문법 교육을 정의하고, 문법 교육의 최근까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문법 교육에 대한 요구나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와 함께 실리게 될 다른 논의들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문법과 문법 교육

2.1. 문법의 정의와 문법 교육

모국어 교육에서 문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문법 교육이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문법론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한다. 하지만 문법과 문법론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다.³⁾

(1) ‘문(文)’, ‘문법(文法)’, ‘문법론(文法論)’의 정의

가. 문(文): 말. 곧 언어.

나. 문법(文法): 말의 구성 및 운용상의 규칙. ≙ 말본02·문전01(文典)

다. 문법론(文法論): 문법을 연구하는 학문. 언어학의 한 분야이다.

문법은 ‘말. 곧 언어를 구성하는 규칙으로, 이를 연구하는 학문인 ‘문법론(文法論)’과는 구별된다. 국어 교육, 특히 문법 교육에서 가르치는 것은 문법론이 아닌 문법이다.

물론 문법과 문법론이 쉽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구본관, 2016). 언어 운용의 원리인 문법은 굳이 학문적으로 밝혀내지 않아도 언어 자체에

3) 문법의 정의와 문법 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구본관(2012, 2016)을 참조하여 본고의 취지에 맞게 기술하였다.

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밝혀내거나 밝혀낸 결과를 교육에 활용하려는 순간 ‘문법론’의 옷을 입고 모습을 드러내기 쉽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리인 문법을 밝혀낸 주창자가 분명하지 않은 ‘학교 문법’, ‘규범 문법’, ‘실용 문법’ 등의 경우 ‘문법’인지 ‘문법론’인지가 더욱 구별하기 어렵다. 그렇기는 해도 학교에서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히 문법론이 아니라 문법이어야 한다. 다만 문법론은 문법을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참조물이거나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문법을 좁은 의미에서 형태와 문장의 측면에 국한하기도 하지만 문법은 언어 운용의 원리로서 언어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한다. 문법 내지 문법론을 문법 교육과 관련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표를 참조할 수 있다.⁴⁾

(2) 언어의 제 측면과 문법 연구 및 문법 교육 분야

언어의 측면	소리	구조		의미(기능)	
		단어 형태	문장 형식	단어 혹은 문장 의미	(의사소통 활동의) 담화 기능
문법 연구 분야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관련된 문법 교육 분야	발음 교육	어휘 및 형태 교육	문장 및 문형 교육	단어나 문장의 의미 교육	담화에 사용되는 단어나 문장의 기능 교육

언어는 기호이므로 본질적으로 형식인 소리와 내용인 의미를 포함한다. 소리와 의미를 잇는 것이 구조이다. 문법 교육에서 포괄하는 문법은 형태와 통사의 측면뿐만 아니라 언어에서 소리의 측면과 의미의 측면, 구조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⁵⁾ 문법 교육에서 일컫는 문법은 구어

4) 이 표는 구분관 외(2015:28), 고영근·구분관(2018:12)를 가져와서 본고의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이다.

5) 실제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교육의 범위에는 현대 국어 문법, 국어사, 국어 규범을 포함하므로

문법과 문어 문법을 포괄하는 것이며, 소리의 발화 원리, 단어 형성과 사용의 원리, 문장의 사용 원리, 담화의 구성 원리를 포괄하는 것이다.

2.2. 문법 교육의 목표인 문법 능력

문법 교육의 목표는 문법론의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문법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문법 능력은 흔히 하임즈(D. Hymes), 커널(M. Canale), 바크먼(L. Bachman) 등의 논의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일부로서 다루어져 왔다. 이 중 바크먼(1990)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정의를 가져와 보자(구본관, 2016).

(3) 바크먼의 의사소통 능력

- 가. 언어 능력: 구조적 능력(문법적 능력, 구문적 능력), 화용적 능력
(언표 내적 능력, 사회 언어학적 능력)
- 나. 전략적 능력: 평가, 계획, 실행
- 다. 심리-생리적 기제: 수용(청각 기능/시각 기능), 표현

의사소통 능력은 문법 능력 내지 언어 능력을 좁게 잡고 문법 능력과는 차별되는 언어 사용상의 능력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이었다. 실제로도 (3가)에서 볼 수 있듯이 바크먼은 형태 내지 통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문법 능력을 매우 좁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문법 능력은 (2)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 능력뿐만 아니라 화용적 능력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바크먼의 언어 능력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구본관(2010)에서는 문법 능력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제시하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일 수 있다. 하지만 공시와 통시, 기술 문법과 규범 문법의 차이일 뿐 이 표는 국어사와 국어 규범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4) 문법 능력의 정의

머릿속에 내재해 있는 문법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여, 언어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언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능력. 문법 능력은 종합적으로 발현되지만 편의상 언어 단위로 나누면 음운 능력, 단어 능력, 문장 능력, 담화 능력 등이 된다.

결국 문법 능력은 언어의 소리, 의미, 구조의 측면을 포괄하여 언어에 대해 알고 실제 언어 사용에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법 교육은 이와 같은 언어 운용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문법 능력을 교육하는 것이 된다.

츨스키의 가정처럼 인간이 언어 능력을 타고나기도 하지만 실제 인간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출생 후에 언어적 노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된다. 모국어 학습자들은 이런 문법 능력을 상당 부분 교육이 아닌 자연스러운 언어생활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교육이 필요한 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문법 능력이 어느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언어 사회의 구성원인 언중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 등을 통해 문법 능력을 교육해야 하는 것이다.

3. 문법 교육 연구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3.1. 문법 교육 연구의 변화

최근의 문법 교육 연구는 문법 교육 안팎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다양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이 절에서는 주로 구분관(2016)을 참조하여 문법 교육

연구의 변화를 ‘문법 교육 자체의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 ‘문법 교육의 확장을 통한 문법 교육의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 ‘사회나 기술의 변화에 따른 문법 교육의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 등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⁶⁾

[문법 교육 자체의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

문법 교육 연구는 문법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서 다양한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최근의 문법 교육의 변화를 보여 주는 연구를 간략하게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문법 교육의 목표를 언어적 주체나 언어 인식, 문법 내지 언어에 대한 태도에 두는 연구들이 주목된다. 이는 문법 교육이 국어 능력 신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문법 교육 안팎의 주장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문법 교육의 목표에 대해 대체로 합의된 논의는 문법 교육의 목표를 학습자를 언어 사용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신명선(2007), 문법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는 이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답이다. 문법 교육의 목표 중의 하나인 언어 인식의 문제는 학습자 자신의 언어를 넘어 사회 문화적인 맥락의 타당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김은성(2006), 외국의 국어지식 교육 쇄신 동향에서 언어 사용의 주체가 언어 사용의 정확성이나 적절성을 넘어 타인에 대해 차별적이지 않은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문법 교육의 방법론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20여 년간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에서 비롯된 탐구 학습이다. 최근에는

6) 이 절의 논의는 주로 구분관(2009, 2016)을 참조하여 본고의 취지에 맞게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분관(2009, 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탐구 학습을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기도 하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이래로 국어과의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 밖에도 ‘김호정 외(2009), 국어과 오개념 연구 방향 탐색’, ‘남가영(2013), 학습자 오개념 형성 요인으로서의 교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형성법’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이관희·조진수(2015), 문법 교사의 오개념 유형화 연구’와 같이 학습자나 교사의 오개념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법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탐구 학습을 제외하고도 문법 교육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문법이 언어 사용의 원리라는 점에 주목한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 학습의 주체 중의 하나인 인간에 주목한 인지적 관점의 문법 교육 연구, 언어가 사용되는 상황 맥락이나 사회 문화적 맥락에 주목한 연구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구본관(2008),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나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법 교육이 언어에 포함된 원리, 특히 언어 사용자인 인간의 인지 작용과 관련한 원리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지룡 외(2014), 문법 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은 인간의 인지에 주목한 문법 교육 논의이다.

언어가 실제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관심은 ‘김혜숙 외(2012), 문법 교육과 텍스트의 만남’, ‘조진수(2013), 텍스트 맥락 기반의 문장 확대 교육 내용 연구’처럼 문장 이상의 단위인 담화에 주목한다. 또한 상황 맥락을 넘어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관심은 문법 교육을 담은 다양한 장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관습에 주목한 이른바 장르 문법 논의로도 나타났다.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남가영(2009), 문법 지식의 응용화 방향: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구문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이관희(2012),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의 가능성 탐색 (2) 기사
문에 쓰인 ‘-기로 하-’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등의 장르 문법 연구로
이어지기도 한다. ‘주세형(2009), 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
미’ 역시 이런 경향을 잘 보여 준다.

[문법 교육의 확장을 통한 문법 교육의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

문법 교육 자체의 변화를 보여 주는 연구 외에 문법 교육을 넘어서 확
장해 나가는 변화를 보여 주는 연구들도 있다.

우선 문법 교육과 다른 영역 내지 다른 과목과의 통합을 보여 주는 연구
들이 있다. 통합은 국어과의 다른 영역과의 통합, 국어과를 넘어서 다른
과목과의 통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법과 기능 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통합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에 ‘심영택(1995), 문법 지식
의 확대 사용 전략에 대한 연구’에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 교육에 관한 담론 연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구본관
(2015), 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문학 영역과의 통합
도 다루어지고 있다. ‘구본관 외(2018), 언어 중심의 교과 융합 교육’처럼
문법과 국어과 밖의 다른 과목과의 통합 논의 역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기도 하다. 문법과 다른 영역의 통합은 ‘구본관(2017), 국어과와 도
덕과의 교과 통합 교육 내용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 ‘배려적 언어 사용’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처럼 국어과, 특히 문법과 다른 영역의 통합을
다루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생태학이 다양한 학문이나 교육을 관통하는 흐름이 되고 있
다. 국어 교육에서도 생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규훈(2012), 문법교육의 생태학적 평가 방안 연구 - 텍스트와 맥락을

활용한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하여, ‘고희성·김혜숙(2013), 생태학적 관점의 통합 문법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등은 문법 교육을 생태학과 관련시킨 새로운 관점의 연구이다.

[사회나 기술의 변화에 따른 문법 교육의 변화와 관련되는 연구]

사회나 기술의 변화는 문법 교육이나 연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우선 국제 결혼, 이주 노동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접근하게 되어 문법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의 상당수가 한국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2언어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문법 교육 연구로는 ‘김혜숙(2012),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 - 다문화 사회의 통합형 문법 교육을 위하여’ 등이 있다. 문제가 같지는 않지만 ‘신명선 외(2010),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등에서도 문법 교육, 국어 교육이 넓은 의미에서 다문화의 한 양상인 탈북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로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핵심 역량이란 학습자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말하는데, 이를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려는 것이 이런 교육 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국어과 특히 문법 교육에서 핵심 역량 관련 연구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강보선(2018), 국어과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문법 평가 설계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평가를 위한 문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와 같은 관련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기술의 발달 역시 문법 교육이나 연구 변화와 관련된다. 다매체

사회로 진입한 상황은 문법 교육이 좁은 의미의 언어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한다.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법’ 영역을 ‘매체’와 묶은 ‘언어와 매체’가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말뭉치의 구축과 교육적 응용은 문법 교육 연구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3.2. 문법 교육 실행의 변화

문법 교육 연구가 실제 학교 현장의 문법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 정책 연구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 등에 직접 반영되기도 하고, 시차를 두고 부분적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문법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2.1. 패러다임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언어학과 교육학의 패러다임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구본관(2009)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법 교육은 언어학이나 교육학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언어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문법 교육에 영향을 끼쳤는데 라틴어 학습을 위한 중세의 규범 문법적 연구가 학교 문법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 훔볼트(W. Humboldt) 세계관 이론의 어문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문법 교육에 반영되어 ‘국어 사랑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점 등이 그러하다. 구조주의 언어학이나 변형 생성 문법 역시 문법 교육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변형 생성 문법 이후 할리데이(M. A. K. 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학은 문법 사용의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으며, 레이코프(G. Lakoff)나 랭어커(R. W. Langacker)의 인지 언어학은 의미론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할리데이의 체계 기능 언어학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는 장르 문법의 논의가 교육과정에 성취 기준으로 반영되는 등 이런 변화는 직접적으로 문법 교육에 반영되고 있다.

교육학의 패러다임이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등으로 변화한 것도 문법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행동주의 교수·학습 이론은 언어학의 구조주의와 연결되어 후천적인 반복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국어를 교수·학습하는 국어 교육보다 청각구두식 교수법 등으로 반영되어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인지주의 교수·학습 이론 역시 변형 생성 문법이나 인지주의 언어학과 관련을 맺으면서 배경지식의 강조나 메타적 인식의 중요성 등 최근 문법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학의 패러다임 중에서 최근의 문법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론이 구성주의이다. 피아제(J.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비고츠키(Les S. Vygotsky)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이르는 구성주의 이론들은 문법 교육의 위계화 문제, 사회 문화적 맥락의 강조, 언어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학습자 중심의 탐구 경험의 강조 등 최근 문법 교육의 변화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법 교육의 시대 구분과 최근 문법 교육의 변화]

문법 교육의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교육 내용의 변화, 교수·학습 방법이나 평가의 변화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부수적으로는 문법 교육 연구도 고려되어야 한다. 문법 교육의 시대 구분에 대한 기존 논의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문법 교육의 시대 구분

연구 논저	시대 구분
김광해 (1997)	제1기: 1890년대~1948년 제2기: 1949년~1965년(검인정기) 제3기: 1966년~1984년(통일문법 검인정 시기) 제4기: 1985년~1997년
임지룡 외 (2005)	제1기: 혼성 단계(1985년~1949년) 제2기: 검인정 단계(1949년~1985년) 제3기: 국정 단계(1985년~현재)
왕문용 (2005)	성립기: 대한제국~대한민국 건국기의 문법 교육 발전기: 1차~3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 교육 성숙기: 4차~7차 교육과정 시기의 문법 교육
이관규 (2008)	발아기(1885년~1921년): 근대적 문법 교육 시작 모색기(1921년~1955년): 조선어연구회 발족, 문법 교육 연구 시작 성립기(1955년~1991년): 국어교육연구회(현 한국어교육학회) 설립, 본격적 문법 교육 연구 발전기(1991년~2008년): 국어교육학회 설립, 본격적 학문으로 꽃피기 시작
구분관 (2009)	제1기(개화기~1954년): 국어학과 미분리, 전통 문법과 구조주의 문법 제2기(1955년~1990년): 사범대 박사 과정, 국어교육연구회 설립, 전통 문법·구조주의 문법·생성 문법 제3기(1991년~2009년 현재): 사범대 대학원 박사 배출, 국어교육학회 설립 전통 문법·구조주의 문법·생성 문법·기능 문법·사회 언어학 등

김광해(1997)과 임지룡 외(2005)에서는 주로 문법 교과서의 성격에 따라 시대를 구분하였고, 왕문용(2005)에서는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하였다. 이관규(2008)에서는 학회의 설립과 문법 교육 연구를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 한편 구분관(2009)에서는 교육과정, 교과서, 문법 교육 연구, 언어학과 교수·학습 이론의 변화 등을 종합하여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

3.2.2.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나타난 문법 교육의 변화

이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문법 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교육과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차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을 모두 살펴봐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으므로 7차 교육과정에서 2015 교육과정에 이르는 변화를 간략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7차 문법 교육과정은 국어의 본질, 국어의 이해와 탐구, 국어에 대한 태도, 국어의 규범과 사용의 실제 등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탐구’가 교육 내용으로 포함된 점, ‘태도’가 강조되고 국어의 규범 등 실체가 강조된 점이 이전의 교육과정과 차이 나는 점이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사용의 실체’가 더 강조되고, ‘태도’ 대신 ‘맥락’이 강조되었으며, ‘탐구’가 교수·학습의 방법이 아닌 내용의 하나로 포함되어 ‘지식’과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태도’가 다시 ‘맥락’을 대신하였고, ‘적용’이 강조되어 ‘탐구’ 대신 ‘탐구와 적용’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⁷⁾

가장 최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의 내용이 재편된다.

7)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만 만들어졌고 국어과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 문법 관련 교과서(독서와 문법)가 만들어진 것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서였다.

(6)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교육 내용 체계 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1~2 학년군	3~4 학년군	5~6 학년군	중학교 1~3 학년군	고등 학교 1학년	
▶ 국어의 본질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기호 체계로서, 언어의 보편성을 바탕으로 고유한 국어 문화를 형성한다.				• 사고 및 의사소통의 수단	• 언어 기호	• 역사적 실체
▶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 음운 • 단어 • 문장 • 담화	국어는 음운, 단어, 문장, 담화로 구성되며 이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국어 지식을 얻고 이를 언어 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 낱말의 의미 관계 • 문장의 기본 구조	• 낱말 확장 방법 • 문장 성분과 호응	• 음운의 체계와 특성 • 품사의 종류와 특성 • 문장의 짜임 • 담화의 개념과 특성	• 음운의 변동 • 문법 요소의 특성과 사용	• 문제 발견하기 • 자료 수집하기 • 비교·분석하기 • 분류·범주화하기
▶ 국어 규범과 국어생활 • 발음과 표기 • 어휘 사용 • 문장· 담화의 사용	발음·표기, 어휘, 문장·담화 등 국어 규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국어 능력을 기르고 바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 • 낱말의 소리와 표기 • 문장과 문장 부호	• 낱말 분류와 국어 사전 활용 • 높임법과 언어 예절	•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이해 • 관용 표현	•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 • 어휘의 체계와 양상의 활용 • 한글의 창제 원리	• 한글 맞춤법의 원리와 내용	• 종합·설명하기 • 적용·검증하기 • 언어생활 성찰하기
▶ 국어에 대한 태도 • 국어 사랑 • 국어 의식	국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어를 바르게 사용할 때 국어 능력이 효과적으로 신장된다.	• 글자, 낱말, 문장에 대한 흥미	• 한글의 소중함 인식	• 바른 국어 사용	• 통일 시대의 국어에 대한 관심	• 국어 사랑과 국어 발전 의식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내용이 재편되기는 했지만 ‘국어의 본질,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국어에 대한 태도’가 고루 포함되어 있어 이전의 문법 교육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문법 지식의 실제 언어생활에 대한 ‘적용’이 ‘활용’으로 바뀌는 등 문법 지식을 학습자의 언어생활과 관련시키는 내용을 강화하고 있다.

3.2.3. 최근 문법 교육의 변화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문법 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고 작은 변화를 보여 주었다. 여기에서는 가장 최근의 교육과정인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법 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의 문법 교육의 변화를 논의해 보려 한다.⁸⁾

첫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문법 교육과정도 학년군제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1-2학년군은 초보적 국어 능력, 3-4학년군은 기초적 국어 능력, 5-6학년군은 핵심적 국어 능력, 7-9학년군은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교육 내용을 위계화하게 된다.⁹⁾ 그리하여 비록 엄밀한 연구에 의한 위계화는 아니지만 위계화를 위한 시도를 보여 준다.

둘째, 고등학교 문법 관련 선택 과목의 명칭이 몇 차례 바뀌게 된다. 7차 교육과정까지는 ‘문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2007 교육과정 이후 선택 과목 간소화 정책에 따라 ‘독서(읽기)’ 영역과 ‘문법’ 영역을 합쳐 ‘독서와 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매체’ 영역과 합쳐서 ‘언어와 매체’가 사용된다. ‘언어와 매체’의 ‘언어’ 부분의 교육 내용은 기존의 ‘문법’의 교육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명칭 변화가

8)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구본관·이관희(2013), 구본관(2016)을 참조할 수 있다.

9) ‘초보적’, ‘기초적’, ‘핵심적’, ‘통합적’이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제 교육과정의 위계화에 이룬 진술이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주관적이나마 이런 방식으로 학년군에 따른 위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지는 합의는 작지 않았다.¹⁰⁾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2011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와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이었다. 특히 수시 개정의 취지에 따라 1년 만에 개정된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2011 개정 교육과정에 ‘인성’ 요소 몇 가지를 추가한 소폭 개정이었다. 이에 따라 문법 교육에서도 인성을 포함한 태도 영역이 더 강조되었다.

넷째, 국어과의 모든 영역이 그러하지만 특히 문법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성취 기준의 수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교육 내용이 감축되었다. 이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2011 개정 교육과정으로, 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감축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2011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1-10학년의 ‘문법’ 영역 성취 기준의 수는 33개에서 29개로 감축되었다. 성취 기준의 수의 감축뿐 아니라 실제적인 내용의 감축도 이루어졌다. 2011 개정 교육과정의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문장 부호를 바르게 쓴다.’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장에 따라 알맞은 문장 부호를 쓴다.’와 같이 교육 내용이 감축되었다.

다섯째, ‘문법’ 영역과 ‘말하기’, ‘쓰기’ 등 다른 영역과의 통합이 많아지게 되었다. 김창원 외(2015)에서는 ‘한글 자모의 이름과 소릿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다.’와 같은 ‘문법’과 ‘말하기’, ‘쓰기’의 통합 예를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여섯째, 문법 교육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 내용이 도입되게 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문법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구본관, 2016).

10) 구본관(2016)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문법’이라는 명칭보다 쉽게 느껴지는 ‘언어’를 선택한 것은 교육과정 연구팀의 의견이 아니라 교육부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었다. 이는 ‘문법’ 영역의 교육 내용을 쉽게 해야 된다는 위로부터의 압력이나 마찬가지였다.

- (7)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신설되거나 재구성된 성취 기준
 가. [12언매02-10] 다양한 갈래에 따른 국어 자료의 특성을 이해
 하고 적절하게 국어 자료를 생산한다.
- 나. [9국04-09]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3가)의 경우 최근의 장르 문법에 대한 연구 성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새로 신설한 것이다. (3나)의 경우 기존의 성취 기준인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한다.’에서 태도 영역을 강조하여 범교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성취 기준을 바꾼 것이다.

4. 문법 교육의 전망

4.1. 문법 교육의 전망 논의를 위한 전제

지금까지 우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을 정의하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법 교육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처럼 문법 교육의 변화는 진행 중이며, 이런 변화는 계속될 것이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인 이미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문법 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문법 교육의 변화를 전망해 보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을 둘러싼 변인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문법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문법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더불어 문법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다음 절에서는 문법 교육 변화에 대한 전망을 학생, 교사, 교육 내용, 교수·학습 방법, 교수 학습의 맥락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4.2. 문법 교육 변인과 문법 교육의 전망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학습자의 문법 능력 신장에 초점]

학습자는 실제 언어 사용자이며 문법 교육의 객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체이다. 문법 교육은 학습자가 언어 사용의 주체로서 자신과 타인의 언어에 대해 성찰하고 인식(language awareness)하는 문법 능력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문법 교수·학습의 주체로서 교사의 역할 강화]

문법 교육의 주체는 학습자만이 아니라 교사도 포함된다. 교육학에서 구성주의의 강조가 학습자를 교육의 주체로 가져오게 하였지만 이런 변화가 문법 교육의 다른 한 주체인 교사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학습자와 함께 교사는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문법 교육 연구에서 교사 지식, 교사의 오개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법 교육의 중요한 축인 교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이루어질 문법 교육의 변화 역시 교사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문법 교육에서 교수·학습 방법의 역할이 강조된 것은 1990년대 김광해(1992)나 김광해(1997)의 탐구 학습 이후이다. 탐구 학습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문법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강조되고 있기도 하다. 문법이 언어 운용의 원리라는 점에서 문법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원리 중심의 접근을 강조한 구본관·신명선(2011) 역시 주목할 만하다. 원리에 대한 강조 역시 교수·학습 방법이자 궁극적으로는 교육 내용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 교육 내용인 언어의 변화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주목]

문법 교육이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문법 교육의 내용은 언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두고 변화하게 될 것이다. 즉, 국어사전이나 한글 맞춤법과 같은 규범 역시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언중들의 언어에 대한 인식 역시 조금씩 변화하므로 문법 교육이 이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정 체제에서는 학교 문법의 교육 내용으로 암묵적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02)의 ‘고등학교 문법’이 중심이 되었지만, 최근 김인정 체제로 바뀌면서 문법 관련 고등학교 문법 선택 과목이 다양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 사업으로 진행된 ‘표준 문법’이 문법 교육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된다.¹¹⁾

언어는 기호의 일종으로 기호의 형식인 소리와 내용인 의미,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문법학에서는 시대에 따라 소리와 의미, 형태, 문장 형식 중 특정 부문에 더 많은 주목을 하기도 하였다. 문법 교육에서도 시대에 따라 언어의 특정한 측면이 더 강조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와서 주목받은 것은 화용론 내지 담화론의 성과를 반영한 실제 언어 사용과 관련되는 문법의 교육이다. 문법 교육에서 화용 내지 담화에 대한 주목은 앞으로 당분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법 교육을 둘러싼 환경인 맥락들의 수용]

문법 교육의 변화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므로 문법 교육의 변화 역시 이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언젠가 다가올 남과 북의 통일

11) ‘표준 문법’은 2013년부터 국립국어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표준 국어 문법’ 개발 사업(연구책임자 유현경)의 결과물을 말한다. 표준 문법 구축 과정에 대한 논의는 유현경 외(2016)을 참조하라.

역시 잠재적인 문법 교육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다.

기술의 변화 역시 문법 교육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언어를 통한 구어(말하기, 듣기)나 문어(읽기, 쓰기) 중심의 좁은 의미의 언어를 넘어서 복합 양식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중요한 시대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문법 교육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인공 지능을 매개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이어지는 시대에 문법 교육의 변화는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마무리

본고에서는 문법 교육이 현재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문법과 문법 교육, 문법 교육의 목표가 되는 문법 능력을 정의하였다. 그런 다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문법 교육의 변화를 문법 교육 연구의 변화와 문법 교육 실행의 변화로 나누어 논의해 보았다. 문법 교육은 문법 교육 자체의 변화 필요성뿐 아니라 다른 과목이나 영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문법 교육을 둘러싼 환경인 사회나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해 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문법 교육의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더불어 문법 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문법 교육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우리가 원하는 원하지 않든 문법 교육은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예측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는 문법 교육의 변화를 전망하여 교육적으로 사회 구성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기여해야 한다. 본고의 논의가 이런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 문헌

- 강보선(2018), “국어과 교과 역량 신장을 위한 문법 평가 설계 -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평가를 위한 문법 평가 요소를 중심으로”, 《한국 문법교육학회 제29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23~138쪽.
-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희성·김혜숙(2013), “생태학적 관점의 통합 문법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 ‘협력학습’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7, 국어교육학회, 187~224쪽.
- 구본관(2008ㄱ), “맞춤법 교육 내용 연구: 한글 맞춤법의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27, 한국어교육학회, 195~232쪽.
- 구본관(2008ㄴ), “문법 교육에서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경어법 교육을 중심으로”, 《선칭어문》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749~779쪽.
- 구본관(2009), “패러다임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방향”, 《어문학》 103, 한국어문학회, 1~40쪽.
- 구본관(2010), “문법 능력과 문법 평가 문항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37, 국어교육학회, 185~218쪽.
- 구본관(2011),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27~59쪽.
- 구본관(2012), “한국어 문법 교수·학습 방법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연구》 3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55~313쪽.
- 구본관(2015), “문법과 문학 영역의 통합”, 《국어교육》 148, 한국어교육학회, 75~122쪽.
- 구본관(2016), “문법 연구의 변화와 문법 교육의 변화 - 탈문법학 시대의 문법 교육의 새로운 지향 -”, 《국어교육연구》 1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97~254쪽.
- 구본관(2017), “국어과와 도덕과의 교과 통합 교육 내용을 위한 내용 구성 방안 - ‘배려적 언어 사용’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 《어문론총》 72, 한국문학언어학회, 9~45쪽.

- 구본관·신명선(2011),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1~297쪽.
- 구본관·이관희(2013), “교육과정 총론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길항 관계 -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에 미친 총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 《교육연구와 실천》 79,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59~85쪽.
- 구본관 외(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구본관 외(2018), 《언어 중심의 교과 융합 교육》, 사회평론.
- 김광해(1997), 《국어지식 교육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규훈(2012), “문법교육의 생태학적 평가 방안 연구 - 텍스트와 맥락을 활용한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3, 국어교육학회, 5~34쪽.
- 김은성(2006), “외국의 국어지식 교육 쇄신 동향”, 《호석 김광해 교수 추모 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29~466쪽.
- 김은성(2007), “학습자들은 왜 문법학습을 꺼리는가? - 문법학습 부진 요인에 대한 연구 -”, 《국어교육연구》 40, 국어교육학회, 35~72쪽.
- 김창원 외(2014), 《문·이과 통합형 국어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교육부.
- 김혜숙(2012), “상호문화적 국어교육의 교수-학습 방향 모색 - 다문화 사회의 통합형 문법교육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93, 한국국어교육학회, 5~46쪽.
- 김혜숙 외(2012), 《문법 교육과 텍스트의 만남》,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혜숙 외(2014), 《생태학 담론을 통한 국어교육 설계》, 동국대학교출판부.
- 김호정 외(2009), “국어과 오개념 연구 방향 탐색”, 《새국어교육》 83, 한국국어교육학회, 211~238쪽.
- 남가영(2008), 《문법 탐구 경험의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남가영(2009), “문법 지식의 응용화 방향: 신문텍스트에 나타난 ‘-(다)는 것이다’ 구문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형태론》 11-2, 도서출판 박이정, 313~334쪽.

- 남가영(2013), “학습자 오개념 형성 요인으로서의 교과서: 중학교 국어 교과서 ‘단어형성법’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7, 우리말글학회, 109~137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편(2002), 《고등학교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신명선(2006), “통합적 문법교육에 관한 담론 분석”, 《한국어학》 31, 한국어학회, 245~278쪽.
- 신명선(2007), “문법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8, 국어교육학회, 423~458쪽.
- 신명선(2010), “인지 의미론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 문법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 《한국어 의미학》 31, 한국어 의미학회, 77~107쪽.
- 신명선 외(2012), 《새터민 어휘 학습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심영택(1995), 《문법 지식의 확대 사용 전략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우형식(2010), 한국어 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우리말학회, 235~266쪽.
- 유현경(2013), “표준문법의 필요성과 개념”, 《문법교육》 19, 한국문법교육학회, 67~99쪽.
- 유현경 외(2016), 표준 국어 문법의 구축, 《언어와 문화》 12-4,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26쪽.
- 이관규(2008), 《학교 문법 교육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관규 외 역(2004), 《문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한국문화사.
- 이관희(2012), “문법으로 텍스트 읽기의 가능성 탐색 (2) - 기사문에 쓰인 “-기로 하-”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16, 한국문법교육학회, 203~239쪽.
- 이관희·조진수(2015), “문법 교사의 오개념 유형화 연구”, 《새국어교육》 102, 한국국어교육학회, 107~152쪽.
- 임지룡 외(2010),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도서출판 박이정.
- 임지룡 외(2014), 《문법교육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태학사.

- 임철성(2010), “자국어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 비교 연구”,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1~28쪽.
- 임홍빈(2000), “학교문법, 표준문법, 규범문법의 개념과 정의”, 《새국어 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5~26쪽.
-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조진수(2013), 《텍스트 맥락 기반의 문장 확대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주세형(2009), “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미”, 《국어교육》 130, 한국어교육학회, 173~204쪽.